

오늘 국회의원 선거...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도내 230곳 투표소에서 오전 6시~오후 6시 진행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도... 자정 전후 당선인 윤곽
12년 만에 제주출신 비례대표 의원 배출 가능성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10 총선 ‘운명의 날’이 밝았다. 거대 여야 정당 후보간의 ‘수성이냐, 탈환이냐’를 놓고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의 결과와 12년 만에 제주출신 비례대표의 탄생 가능성이 높아 도민사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가 10일 도내 23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구별 당선자 윤곽은 자정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등 3개 선거구에서 후보 7명이 출마한 가운데 여야 거대 정당 후보 간 맞대결이 치열하다. 도의원 보궐선거는 1곳으로 제주시 아라동을 지역구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며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했다.

총선 선거구별 대결구도는 여야 거대 양당간의 맞대결 양상이다. 여야 후보 진영은 ‘윤석열 정부 심판 정권교체’와 ‘20년 고인물 제주정치교체’를 강조하며 마지막 선거일정을 더욱 가열차게 진행했다. 제주시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립 후보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맞고발하며 막판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제주시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와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의 3파전 구도로 유권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근 후보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며 막판 표심잡기에 분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주지역 총선 선거인 수는 56만4524명(비례대표 선

거인 수 포함 56만6611명)으로 지난 21대 4·15 총선 당시 선거인 수 55만3198명에 견줘 1만1326명(2.0%) 늘었다. 도의원 보궐선거 선거인 수는 1만3044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도선관위는 각 읍면동과 도서지역 등 투표소 230개소와 개표소 2개소(제주시 한라체육관·서귀포읍 립픽기념국민생활관)를 설치했다.

이번 총선에서 제3정당의 돌풍도 관심사다. 이와 맞물려 제주출신 비례대표가 12년 만에 배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인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9번에 배정됐는데, 현재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현애자 옛 남제주군 여성농민회장이 민주노동당으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장하나 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5·6일 제주 사전투표율은 28.5%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사전투표율 33.7%)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았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mailto:백금탁기자@ihalla.com)



투표지 분류기 점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장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해녀어업 전승 위해
신규 진입 장벽 낮춘다
도, 5개 전략 사업 추진

제주지역의 해녀 가입 장벽이 완화되고,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고령화 등으로 사라져가는 제주해녀의 명맥을 잇기 위한 것으로, 위기의 제주해녀를 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해녀 수는 2839명으로 전년(3226명) 대비 11.9% 감소했다. 70세 이상 비율도 60.3%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로 해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신규해녀 양성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신규해녀 양성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신규해녀 양성기반 조성, 신규해녀 5대 전략, 11개 세부과제, 26개 세부사업을 마련해 집중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신규해녀 양성기반 조성을 위해 민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녀학교 교육과정 체계화 및 기반 확충을 도모한다.

신규해녀 진입장벽 완화 등 대응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 신규해녀 양성추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해녀역량강화 교육과 직업 해녀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해녀공동체 이해 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특히 기존 해녀와 인턴해녀 간 1:1 멘토링 운영 지원으로 인턴해녀가 해녀공동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물질기술과 해녀공동체 문화를 전수한다.

신규해녀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해녀 초기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가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초기 정착금 지원연령을 현재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현재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인턴해녀를 대상으로 잠수복 지원 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정권 심판” vs “민주당 20년 독주 안돼”

오늘 본투표 앞두고
정당별 표심에 호소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제주지역 각 정당은 정권 심판론과 민주당 독점론 등을 앞세워 투표장으로 향할 유권자들을 향해 마지막 지지를 읊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투표로

현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0일은 대한민국과 제주의 미래를 여는 날로 투표로 심판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윤석열 정부 3년 대한민국은 민생 파탄, 물가 폭등, 경제 폭망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검찰 독재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민주주의는 후퇴했다”며 “반드시 투표장으로 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20여년간 제주지역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부패와 대안 부재 등에 공세를 펼치며 ‘바꾸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이번 선거는 20년 독점의 고여있는 제주 정치를 교체하고 미래로 나가느냐, 끊임없는 발목 잡기의 입법 독재를 통해 과거에 머무느냐의 기로에 선 엄중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역 내 총생산(GRDP), 1인당 개인소득, 근로자 평균 임금 등 각종 지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고 경제 여건은 갈수록 악화일로”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제주도정은 특하면 정부 탓으로만 돌리며 본인들의 정책 역량과 대안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선대본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노동자와 여성·소수자, 서민과 약자들 곁에 함께하는 진보정치를 펼치겠다고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번 총선은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자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선거”라며 “정의로운 정권 심판을 위해 녹색정의당이 꼭 필요한 만큼 시민들의 손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최선투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정의당이 기후를 살리고 진보를 지킬 수 있도록 지켜 달라”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제주 4·3은 세계인의 기록이자
역사입니다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

화해와 상생의 정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함께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rp.

